

SK, 아스팔트 중국수출 호조

2004년 120만톤에 2억2000만달러 기록 ... 중국시장 11% 차지

SK가 개발한 고급 아스팔트의 중국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SK가 2004년 들어 중국에 수출한 고속도로 건설용 아스팔트는 총 120만톤에 2억2000만달러(2300억원)로 중국 전체시장의 11%를 차지했다. 중국 수입물량 기준으로는 48%에 달하고 있다.

SK는 1999년부터 아스팔트를 본격적으로 수출한 이래 6년째인 2004년 500만톤을 돌파했다.

또 중국이 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박람회 등을 앞두고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도 아스팔트 수출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가 중국 수입물량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처음 개발한 <분자결합형 고분자 아스팔트>를 중국에 적극 마케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는 고온에서 점도가 떨어지는 반면 저온에서 유연성이 저하되지만 슈퍼팔트는 분자 상태에서 입자를 촘촘히 결합해 변형과 균열을 예방한 것이 특징으로 포장도로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또 현지화를 위해 2001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SK 아스팔트를 독점으로 취급하는 현지 대리점을 개설했고, 기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베이징에 아스팔트 R&D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화둥지역에 대규모 아스팔트 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3만톤을 저장하고 입·출하할 수 있는 물류기지로 중국 화둥지역 최대의 아스팔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공로물자공사와 600만달러를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2004년 8월 투자계획을 완료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분 51%를 확보했다.

<화학저널 2004/12/08>